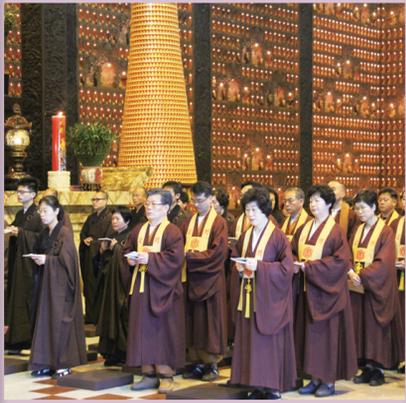




8면에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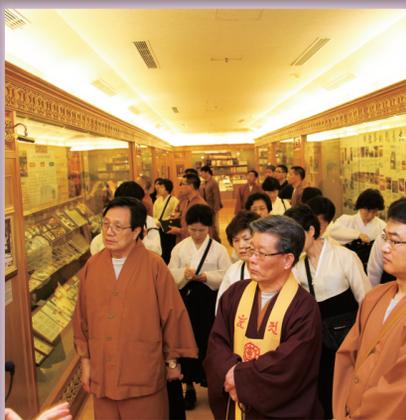
불광산사 대비전에 올려퍼진 육자진언 "옴마니 반메흠"



▲ 불광산사 아침예불



▲ 불광산사 아침 발우공양



▲ 불광산사 기념관



▲ 불광산사 사경원



▲ 대비전 전경



▲ 대비전 총지종 단독불공

4월 13일

타이페이에서 출발해 푸리의 중대선사를 거쳐 까오슝까지 약 400Km를 이동한 어제의 여독이 가시기도 전에 불광산사의 새벽을 맞았다.

스승님들은 떠나 할 것 없이 새벽예불에 동참하기 위해 어둠이 가시지 않은 게스트하우스 앞으로 모였다. 통리원장과 총무부장을 선두로 줄을 지어 법당으로 향하는 모습은 한마디로 장엄 그 자체다. 정통밀교 총지종의 단합된 모습으로 대만 불교의 중심도량의 새벽예불 동참은 우리 중 단 역사에도 길이 남을 일이다.

현, 밀을 가리지 않고 불법홍포를 위한 방편을 만나기 위한 수행자의 발걸음은 세계 어디라도 못 갈 곳이 없다. 조용히 법당으로 입장한 스승님들은 비록 언어의 차이로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일벌제자로 오랫동안 동참한 듯 자연스럽게 예불에 동참했다. 이번 주에는 약사경을 독송하는 기간이다. 이곳은 어느 한 경전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경전을 새벽예불 시간에 독송한다. 예불을 마친 후 연수단은 공양간으로 향했다.

공양간으로 가는 걸음도 수행이다. 모두가 묵언으로 발길을 옮겼다. 1,000여명은 수용 할 수 있을 듯 보이는 공양간에 앉은 총지종 스승님들은 어제 배운대로 공양계를 독송한 후 공양을 들었다. 공양으로는 밥과 국 그리고 기름에 볶은 나물과 중국 된장이 나왔다. 조금은 생소한 발우공양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스승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이 한 몸 진언 염송 수행으로 불법을 이루는 그날까지 용맹정진 하겠습니다."라며 숙으로 다짐하셨으리라.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본격적인 불광산사 참배에 들어갔다. 먼저 대웅전 뒤쪽에 위치한 불광산사의 기념관을 들렸다. 이곳은 불광산사를 개창한 성운대사의 구도 역정과 오늘날 불광산사의 포교, 교육, 수행에 관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다.

성운대사는 중국 강소성 의현의 임제종 대가사로 12살에 출가 하셨다. 장개석 정부가 타이완으로 옮겨 올 때 같이 건너왔다고 한다. 지금의 불광산사가 위치한 지역은 대나무 숲만 무성하여 '귀신도 살기 어려운 곳'이라고 신도들이 엄청난 반대를 했다. 그러나 성운대사는 "귀신이 못살면 사람이 살면 된다."며 한 생각 바꾸어 엄청난 대작 불사를 시작했고, 마침내 불타 기념관 까지 완공한 거대한 불국토를 이룬다.

오늘의 불광산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성운대사는 4대 슬로건을 제정한다. 문화를 통한 불법의 흥포,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자신을 통한 사회복리의 증진, 불교를 통한 마음의 정화의 네 가지 큰 목표를 정하고 '인간불교'를 표방한다. 타이완 국내에 194개의 분원을 설립하였고, 2개의 중학교와 3개의 대학,

출판사, 위성TV, 일간지 인간복보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신도 조직인 국제불광회를 창설하여 봉사와 수행의 결사체로 전 세계적인 조직으로 성장한다. 불광산사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경전 판찬사업이다. 성운대사는 현,밀을 구분하지 않고, 남전과 북전의 대장경 모두를 모아 출간하여 많은 불교학 연구자들에게 제공하였다.

특히 산사 내의 불학원에는 승, 속의 구분 없이 입학하여, 같은 교과과정으로 공부한다. 우리의 불교학 교육체계와는 확연히 다른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 기념관과 선방을 둘러보고, 사경원으로 향했다. 대웅보전에서 오른 편으로 위치한 사경원은 사원을 방문하는 모두에게 개방되어 5분 동안 쓸수 있는 것부터 다양한 사경지를 준비해 두었다.

사경원을 담당하는 스님은 친절하게 우리 연수단을 맞아 사경의 기회를 주셨다. 모두들 한글자 한글자 '옴마니반메흠'을 염송하며 정성을 다했다. 사경 후에는 스님이 직접 말아 가지고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연수단은 잠시 휴식을 갖기로 했다. 의일 스님의 안내로 단신투로 향했다. 단신투에는 사원을 방문하는 참배객들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공양하는 전각이다. 평공가투가 고행으로 올라있는 죽 한그릇은 이곳의 인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은 정성이자, 다음은 보장관 관람이다.

보장관은 성운대사가 전 세계 불교유물을 수집 전시한 박물관이다. 멀리 인도에서부터 동남아시아, 한국 등 부처님과 관련된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보장관에 이어 정토동굴로 들어섰다. 부처님의 삼천대천세계를 조형물로 옮겨 놓은 곳이다.

놀이 공원에 입장한 느낌이다. 불교를 잘 모르는 일반 관광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불교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관람하는 내내 센터에 따라 움직이는 불, 보살과 장엄물들을 바라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성운대사의 놀라운 방편에 모두들 놀랐다.

점심공양을 든 연수단은 불광산사에 최초로 건립된 대비전으로 향했다. 총지종 연수단의 단독불공을 봉행하기 위해서다. 원래 일정에는 없는 불공으로, 통리원장님의 제안으로 미공개 구역인 대비전 불공이 이루어진 것이다. 대비전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본전인 대웅보전의 오른쪽에 위치했다. 관세음보살을 모신 전각으로 이곳에 처음으로 지어진 역사적인 전각이다. 총지종 연수단은 총무부장 인선정사의 집공으로 대중불사를 봉행했다.

옴마니반메흠 육자진언이 올려 퍼지는 대비전은 관세음보살의 가지력으로 세상 모든 중생들이 함께 성불하기를 바라는 서원으로 가득 찼다. 이 순간은 정통밀교 총지종의 의례에 따라 대만 불광산사에서 봉행된 최초의 불사였다. 모든 스승님들의 법안에는 총지종의 자부심과 긍지로 환희에 찬 미소가 가득했다.

(다음호에 계속)

타이완 = 김중열기자

총기 41년 ·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 | | | | |
|------|-------|------------|-------|
| 이 사장 | 지 성 | 감 사 | 안 성 |
| 이 사 | 법 공 | 감 사 | 법 우 |
| 이 사 | 대 원 | 감 사 | 박 정 선 |
| 이 사 | 선 도 원 | 교 장 | 장 재 계 |
| 이 사 | 인 선 | 교 감 | 탁 상 달 |
| 이 사 | 강 경 중 | 사무국장 | 법 선 |
| 이 사 | 김 무 남 | 행정실장 | 석 동 훈 |
| 이 사 | 정 영 문 | 교직원 및 행정직원 | 일 통 |



총지의 이름으로 부처님 세상 연등을 밝히다. 불기 2556년 서울, 부산 연등제 봉행



불기2556년 연등제가 서울과 부산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봉행되었다. 5월 19일 서울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는 불교총지중을 비롯한 주요종단과 서울 시내 사찰이 동참한 연등회가 봉행되었다.

어울림마당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불자연예인 김병조씨의 사회로 합성과 웃음으로 가득 찬 화합의 잔치마당을 열었다. 청소년부터 성인으로 구성된 연희단의 율동으로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어 조계종 현담스님의 사회로 연등법회가 봉행되었다.

총지중 지성 총리원장을 비롯한 주요종단 대표의 관불의식에서는 톱비나 동산에 태자의 몸으로 나투신 아기 부처님 탄생을 축하했다.

명종, 삼귀의, 반야심경봉독에 이어 봉축위원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오늘 우리가 밝히는 이 등불이 나의 작은 욕심을 버려 내 이웃들과 더불어 행복해지며, 세상을 편안하게 하는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며 연등 축제의 기회를 선언했다.

진각종 총리원장 혜정 정사는 발원문을 통해 “저희들이 오랜 세월동안 인과의 도리를 알지 못하여 갈 길을 몰라 헤매었나봅니다. 이제 바른 법을 만나 귀의하오니 빛과 희망으로 그 모습을 나누시어 오늘 저희의 발원에 감응하소서.”라며 온 누리에 부처님의 가사가 원만하기를 서원했다.

동국대학교 김희옥 총장의 행진 선언과 함께 총지사 마니합창단 박정희 단장을 비롯한 15명이 참가한 봉축연합 합창단의 축가로 연등제 출발을 알렸다.

불교 총지중은 서울, 경인 교구(교구장 범등 총지사 주교) 스승 및 교도 300여명과 종립동해중학교 학생 100여명, 5월 창단한 불자 축구단 ‘총지드레곤스’ 40여명이 동참하여 진언 밀교의 법등을 화려하게 밝혔다. 동국대를 출발하여 동대문, 종로를 거쳐 종각까지 이어진 연등행렬은 수많은 서울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특히 총지드레곤스는 불교

종단으로는 최초로 창단된 성인 축구단으로 불교TV 생중계에 두 번이나 소개되는 등 집중한 관심을 받았다.

서울 연등제는 저녁 9시 30분 종각사거리에서 열린 ‘회향한마당’에서 불자가수들의 음악공연이 펼쳐지는 가운데 서울시민, 외국인, 행렬참가자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져 그 장엄한 막을 내렸다.

부산연등축제

5월 20일 부산구덕운동장에서 봉행된 ‘2012 부산연등축제’ 봉축연합대법회에는 불교총지중 부산, 경남교구(교구장 화음사 수현 주교)는 스승 및 교도 약300여명과 동해중학교 장재계 교장선생님과 교직원, 풍물패를 비롯한 학생 100명이 참석하여 열기를 더했다.

오후 6시 율법공양으로 총지중 중앙총회의장 대원 정사(부산봉축위원회 홍보위원장)가 꽃 공양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개회사, 저녁예불, 발원문, 대화사, 범어 등의 순으로 진행 되었다. 범어사 학인들의 집공으로 시작된 저녁예불은 비록 현교의 의례로 진행되었지만, 부산불자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좋은 시간이었다.

대회장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은 “연등처럼 밝은 세상, 연꽃처럼 맑은 부산을 위해 함께 서원을 세우고 이 세상에 불국토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원하며, 우리 모두가 자기 성찰로 깨달음을 이루는 그날까지 힘차게 걸어 나갈시다.”며 연등축제의 의미를 발원했다. 봉축위원회를 선두로 시작된 연등행렬은 구덕운동장을 출발하여 구 법원 앞을 거쳐 용두산공원으로 향했다.

총지중 부산, 경남교구는 기수단을 선두로 준제결인, 아기부처님 탄신불, 관세음보살 등 장엄등과 동해중 난타 공연단을 실은 트럭과 풍물패에 이어 중대팔엽원 개인등을 든 교도들이 뒤를 따랐다.



풍물패의 원반돌리기로 시민들의 눈길을 끈 총지중 연등 행렬은 난타공연으로 신명을 더하고, 장엄등 행렬에 합장 삼배를 올리는 불자들과 박수로 맞는 시민들로 거리는 가득 찼다. 회향한마당이 펼쳐지는 용두산 공원에는 연등축제에

동참한 3만 여명의 시민들로 발 디딜 틈도 없었다. 밤 10시 화려한 불꽃놀이를 끝으로 축제를 마쳤다.(관련화보 5,6,7면)

서울, 부산=김종열 기자

자비를 바탕으로 보육 사업의 첫 삽을 뜨다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초록 어린이집』 개원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이 개원식이 5월 17일 오후3시 서울시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 1단지 초록어린이집에서 봉행되었다.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지성 총리원장, 중앙교육원장 화령정사, 총무부장 인선정사, 법장원 김중인 박사 등 종단 관계자와 신영희 강남구청장, 전공석 강남구 구의원, 복지문화국 오병혁 국장, 보육지원과 이창훈 과장 및 지역 주민, 강남구 관내 어린이집 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성총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대자 대비한 자비 사상의 구현은 어린이 복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총지중 사회복지재단을 대표해 최상의 보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며 종단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신영희 강남구청장은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단지에서 처음으로 개설되는 어린이 집을 총지중 사회복지재단이 수탁하게 되어 든든합니다. 강남구는 앞으로 총지중 사회복지재단과 연계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며 총지중과의 지속적인 복지 사업 연계를 희망했다.

주요 인사들은 개원 테이프를 자른 후 어린이 집 시설을 둘러보며 안전하고 이상적으로 계획 된 보육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어린이집 황화성 원장은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의 초록어린이집은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과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장 안전하고 이상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불교적 인성 교육을 통해 예의바르고,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개원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건강한 어린이 + 지혜로운 어린이 + 예의바른 어린이

최고의 보육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지성
초록어린이집 원장 황화성 합장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현풍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관리동 1층
문의: 02-445-2326

불기 2556년 불교주요종단 종정

봉축법어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불성은 다름이 아닌 자신의 마음

지혜를 닦는 수행으로 식이 맑으면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불성이 빛나게 됩니다. 그러나 삼독으로 인한 지나친 물질에 대한 욕망의 마음은 번뇌만 일으키고, 정신을 혼란하게 하여 불성은 사라지고, 악업만이 치성하게 되어 상호갈등을 유발하며, 마침내 불화와 고통으로 인한 혼탁한 세상이 됩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사고와 행동으로 인한 병통(病痛)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현대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하기에 우리는 부처님께서 오신 뜻과 그 가르침을 더욱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각자의 욕망을 억제하고 수용하며 비우고 버리게 되면 심령이 고요하게 되어 지혜가 열리며, 투쟁과 갈등이 사라지게 되어 희망과 행복의 마음을 나누는 현실정토 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준동합령(蠢動含靈)이 이고득락(離苦得樂)하고, 일체중생(一切衆生)이 공성불도(共成佛道)하기를 기원합니다.



성조 정사
진각종 종인

몸과 입과 뜻을 장엄합시다

향됩니다.

매마른 대지 위에 단비를 뿌리면 초목이 자라서 꽃피워 열매 맺습니다. 룬비니의 광명이 누리에 넘치게 하여 지금 이 세상을 불국정토 만들어 갑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환희하게 살게 합시다.

동해의 서광(瑞光)을 온 몸으로 받고서

병고와 가난과 불화의 늪에서 힘겹게 살던

대한(大韓)의 땅에 진각성종 회당대 종사께서

집짓 몸을 내어 보으신 까닭도 지금 여기

불은(佛恩)의 품속에서 더 많은 중생이

안존(安存) 열락(悅樂)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무진(無盡) 무여(無餘)의 중생계와 더불어

부처님의 감탄을 봉축합니다.

종조님의 무진서원(無盡誓願) 받들어 갑시다.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인인개개(人人個個)가 참나를 찾아 반야의 밝은 지혜를 회복하자

정진精進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인류여, 안으로는 참나를 찾는 데 게으름이 없고, 밖으로는 남을 돕고 베푸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나를 찾지 않으면 마음의 번뇌와 갈등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고, 복은 짓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남을 도우면서 바르게 참선을 닦아 나가면, 마음의 온갖 번뇌와 갈등이 붉은 녹듯 사라져 다 같이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와 남이 없게 될 것이니, 어찌 남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산승이 오늘 한마디 덧붙이건대,

자라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인류의 밝은 미래를 위한 인성교육人性教育의 일환으로 산승이 다음과 같은 오계五戒 사상思想을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는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둘째는 부모에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것이요,

셋째는 친구를 사귀어 있어 서로 믿음, 사랑, 공경으로 대하는 것이요, 넷째는

말은 바 일에 있어 성실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다른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계입니다.

모든 학생들, 나아가 만인이 이 같은 다섯 가지 계율戒律을 잘 받들어 행할 것 같은 온 집안이 화목하고 온 인류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빛과 진리의 당체(當體)로 이 어두운 사바에 오신 뜻은 무명업식(無明業識)의 우매한 중생을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이끌어 생명의 빛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믿고 행복한 현실의 삶을 위하여 청정한 지혜로 안락한 부처님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 우리사회는 물질과 정신을 분리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사고와 행동하고 있으며, 지식과 지혜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만능에 전도된 몽상의 세상에 살면서, 정보의 홍수와 향락의 과도 속에서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지식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식을 맑히고 깨끗한 영혼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지혜를 닦고자 하는 참된 수행자의 길은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동 스님
천태종 종정

푸른 새싹마다 빛나는 부처님

세상에 가득 찬 자신을 보십시오. 남이 없습니다.

모두가 내 부모 내 형제며 나의 아들과 딸입니다.

모든 생명이 나의 삶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한 뿌리요,

세상은 한 송이 꽃이라 아름답게 피어 나는 저 꽃 뒤에는 무수한 인연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의 등불을 밝혀 주십시오.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푸른 새싹마다 부처님 모습이 빛나니 오늘은 부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어둠을 밝히고 모든 이웃에게 예경하십시요.

곳곳마다 공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착한 일을 그치지 마십시오.

행복은 당신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벽송 스님
원효종 종정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혁신하길

世尊十方界 常放 大光明
比如 千日出 照曜 大千界
세존께서 시방세계 크신광명
항상 나투도다 마치 천개의
태양이 뜬 것 같아서 온누리를
밝게 비추시는 도다

초파일은 부처님께서 전인류의 화평과 행복을 위하여 이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께서 고통받는 인간을 구제하기 위하여 사바세계에 오셔서 모든 생명에 자비와 지혜를 베풀어 고통없는 세계에서 안락하게 살도록 하기위한 크신 인연으로 사바세계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아상과 아집과 편견과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혁신을 통하여 남과 이웃을 위하고 인류의 화평과 행복을 위해 실현해야 합니다.

모든 중생은 보리심 모두내어 지극지성을 한등의 등불 밝혀 국가와 가내에 부처님 광명과 가호 총만하시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개천사	이희권	4/27	10,000
개천사	무명씨	5/2	10,000
개천사	전경태	5/4	40,000
개천사	강순시	5/22	10,000
개천사	이희강	5/24	10,000
개천사	한재호	5/24	10,000
건화사	무명씨	5/1	5,000
건화사	무명씨	5/1	10,000
건화사	무명씨	5/1	25,000
관성사	황성녀	4/26	10,000
관성사	박현숙	5/3	10,000
기로	해정	5/8	10,000
기로	대관	5/21	10,000
기로	대자행	5/21	10,000
기로	밀공정	5/21	10,000
기로	법수원	5/21	10,000
기로	법장화	5/21	10,000
기로	법지원	5/21	10,000
기로	불멸심	5/21	10,000

기로	사홍화	5/21	10,000
기로	상지화	5/21	10,000
기로	수중원	5/21	10,000
기로	총지화	5/21	10,000
단음사	천공	5/7	4,000
단음사	법연지	5/18	10,000
덕화사	하순옥	5/14	5,000
덕화사	시정	5/21	10,000
덕화사	원만원	5/21	10,000
만보사	정덕순	5/3	10,000
밀인사	정정희	5/2	5,000
밀인사	이재갑	5/7	20,000
백월사	김현중	4/27	10,000
벽룡사	양정현	4/30	10,000
벽룡사	양지현	4/30	10,000
벽룡사	무명씨	5/2	10,000
벽룡사	무명씨	5/2	10,000
벽룡사	양정현	5/21	10,000
벽룡사	양지현	5/21	10,000

선립사	황귀석	5/4	20,000
선립사	정복지	5/16	10,000
선립사	심지장	5/16	10,000
성화사	우담배라희	5/17	75,000
수인사	김봉기	4/26	10,000
수인사	장영택	5/7	50,000
승천사	원봉	5/16	10,000
승천사	지선행	5/16	10,000
실보사	조순애	5/16	160,000
실지사	정경자	4/26	10,000
실지사	송우섭	5/9	5,000
실지사	박병성	5/23	500,000
운천사	반야화	4/27	30,000
운천사	최원오	5/7	20,000
운천사	최정필	5/7	20,000
자석사	신말심	5/21	30,000
정각사	구정희	5/4	20,000
정각사	정희연	5/8	10,000
정각사	박동휘	5/18	10,000

정각사	김문수	5/24	10,000
지인사	승효계	5/16	10,000
혜정사	조성기	4/27	10,000
혜정사	김경미	4/30	20,000
혜정사	정은선	5/22	20,000
혜정사	지성인	5/22	20,000
화음사	송호영	5/10	20,000
화음사	백주희	5/14	10,000
화음사	백지우	5/14	10,000
화음사	박옥자	5/17	10,000
화음사	이영희	5/22	10,000
흥국사	지정	5/16	20,000
	이혜원	4/30	5,000
	강순란	5/3	5,000
	무명씨	5/9	10,000
	류승태	5/18	10,000

4월26일부터 5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스승님 언제나 우리 곁에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5월 15일 스승의날 보은의 자리 이어져



총지중 각 사원의 신정회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 총지사 신정회(회장 김은숙 보살)는 미사리 한식당에서 효강 종령 예하와 지성 통리원장 및 서울 경인지역 스승님들과 기로스승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는 자리를 가졌다. 김은숙 신정회장은 효강 종령에게 꽃 공양을 올

리며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도들의 즉신성불의 진언말법을 전수해 주시는 종령 예하를 비롯한 전 스승님들께 감사의 경배를 올립니다.”며 스승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성 통리원장 인사말에서 “해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해 보은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교도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승가와 재가의 구분없이 염승

정진을 통한 즉신성불의 영원한 도반이 되었으면 합니다.”며 자리를 마련한 신정회에 감사를 전했다. 부산의 정각사와 대구의 개천사, 인천의 지인사 등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각 신정회 별로 보은의 자리를 열었다.

통리원=장동욱 계장

교화와 수행의 열정을 이어가겠습니다.

대도행 전수 49재 회향



대도행 전수의 49재가 5월 19일 서울 관성사에서 원만히 회향했다. 관성사 주교 인선정사의 집공으로 열린 49재는 효강 종령 예하를 비롯한 서울,

경인지교 스승님들과, 기로스승님 지성 통리원장, 대구 개천사 우인 주교, 진주 화음사 수현 주교, 마산 운천사 도현 주교, 기로스승과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이날 49재에는 전국의 스승님들이 모두 참석 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진행된 서울 연등회와 지역 연등회 준비로 지역 대표 스승이 참석했다.

총지중 49재 의례로 진행된 법회에서 지성통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언제나 온화한 미소로 교화와 수행에 임하시던 스승님의 극락왕생을 서원합니다. 선대 열반 스승님들의 용맹정진이 없었다면 오늘의 총지중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스승님들의 유훈을 잘 받들어 정통 진언 밀교의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며 대도행 전수님의 교화와 수행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유가족과의 상호 합장 반배를 끝으로 49재는 원만히 회향했다.

관성사= 김종열 기자

화합으로 부산불교의 새 전기를 마련하자 범어사 수불 스님 부산불교연합회장 취임

범어사 신임 주지 수불스님이 제11대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회장에 취임했다. 5월 14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 취임식은 불교총지중 중앙총회의장 대원정사, 부산경남교구장 수현정사를 비롯한 스승님들과 교도 30여명과 조계종 원로의원 정관스님, 전 포교원장 해종스님, 조계종 부산연합회장 수진스님(해인정사 주지),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허남식 부산시장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직전 회장 정여스님은 수불스님에게 부산불교연합회기를 전달하고 “재임 기간 중 여러 종단이 합심하여 어려움을 나누고 부산불교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해주시고”고 말했다. 수불스님은 취임사에서 “전임회장인 정여스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무형문화재 제

122호로 지정된 연등회를 통해 부산불교의 지력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산에 상주하는 모든 종단 및 신행단체와 힘을 모아서 안으로는 불조의 혜명을 이어온 한국불교의 근간이라는 자부심을 확립하고 밖으로는 한국불교의 중흥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수불스님은 안국선원을 개창해 조계종 간화선 흥포에 앞장선 선승으로, 지난달 산중총회에서 범어사 주지로 당선되었다. 부산롯데호텔=김종열 기자 정각사 이상록 통신원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사 입제

5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호국가와 조상불공으로

불교총지중의 전통적인 수행인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사가 5월 28일 총본사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원에서 일제히 입제식을 봉행했다.

이번 불공은 전반기에 이어 ‘조상 불공’으로 유언, 무언의 조상을 위한 불공으로 봉행된다. 총지사 범등 주교는 “지금의 자신이 있기 까지 수많은 생을

거쳐 왔습니다. 나의 부모와 조부모 등 조상 영식 뿐 만이 아니라, 내 안에 내재한 수많은 조상을 위한 불공으로 용맹정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며 49일간의 불공의 서원을 세웠다. 매일 오전 10시 전국의 서원당에서 봉행되는 불사는 7월 15일 회향을 마치고 전 교도들이 참석하는 방생법회를 봉행 할 예정이다.

발길 따라 부처님의 그림자를 찾다.

부산 정각사 윤달 삼사순례 다녀와

부산 정각사(주교 대원정사)는 윤달을 맞아 삼사 순례를 다녀왔다. 윤 3월 3일 이른 아침 정각사를 출발한 순례단은 의성 고은사, 영주 부석사, 봉화 축서사를 차례로 순례했다. 대형버스 3대에 나누어 탄 교도들은 봄날 윤 춘산월을 맞이하여, 봄소풍을 겸한 삼사순례에 올랐다. 밤사이 내린 비로 하늘과 땅은 맑고 깨끗했다. 상쾌한 마음으로 각자의 가슴에 부처님의 가지력과 고운 마음을 가득 채운 하루였다. 함께한 도반들과 정다운 이야기꽃을 피우며 각박한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를 마음껏 날려버린 좋은

부산정각사=이상록 통신원



불교총지중에서 발행하는 불교전문지

위드다르라는 진리의 말씨름

Content 6. 2012

불교이야기. 신을 믿는 종교와 진리를 믿는 종교_ 화령정사
수행이야기. 적을 친구로 만들기_ 성운대사
[테마기획] 자신의 내면 세계를 살펴라_ 본각스님
진언수행의길. ‘람’자관 범경정사
[기획연재] 황제를 두들겨 패다_ 원철스님
만다라세상. 가장 가까운 인연을 잘 보살피라_ 지정정사
마음의등불. 베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자지_ 백운경안
행복찾기.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_ 지연전수
차양기숙으로. 천천히 가는 낙타_ 이정아
씨앗한알. 다 익은 벼 이삭처럼_ 이정아
빨리리경전이기. 살아있는 동안 공덕을 짓자
진리의 길. 구부덕고, 영원이 충족될 수 없는_ 보정
아주특별한선물. 소중한 사람에게_ 달리아라마
이달의경전. 약사본원경
지혜의드라카. 바다에서 배우는 인생 10단의 길
디딩들. 세상에 건네는 마지막 인사_ 백경남
함께보는불교미술. 구마라존자와 지계 전생담
생각하는 우화. 산불, 골짜기, 피알까?
산책. 나도 지나치는 바람이려니_ 여신
규제와편견의한계를넘어서여성들. 차미리사_ 백묘정
걸망의당간이야기. 초나라 임금의 황금화살_ 정락스님
건강한방상. 상생된장국수
우리말바라기. 위로와 위안 | 겁과 찰나

2012. 6월 (통권 104호) 표지
꽃분홍 연꽃이 수줍은 미소로 반겨주세요.
6월의 연꽃세상.

영원한 진리의 말씀 위드다르마

오늘이 전하는 길잡이입니다

☆ 행복찾기

미지근한 사랑이 오래 따뜻하다는 것.
정성이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사소함에 있다는 것.
인생이란 늘 이틀 악물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보다는 좀 느려라도 착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걷는 사람에게 지름길을 열어주는 지도 모른다는 것.
세상에서 한 발 물러나자 비로소 꽃과 구름과 바람이 보였다.
-본문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중

☆ 담고 싶은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 보내실 곳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불교총지중 위드다르마 편집부앞
-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22-047811-13-128 예)불교총지중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림. 백성스님

평화와 화합의 등불이 되기를 불기2556년 봉축 장엄등 점등식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불기 2556년 봉축 장엄 등 점등식이 5월 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봉축 장엄등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불교총지종 지성통리위원장, 봉축위원장 지승 스님(조계종총무원장), 대교종총무원장 인공 스님, 천태종총무원장 대행 무원

스님, 진각종 통리위원장 혜정 정사를 비롯한 각 종단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사부대중 2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부처님 오신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서울 광장을 밝히는 장엄등은 국보 제35인 화엄사 사자삼층석탑을 원형으로, 좌대 2.7m, 총 높이 18m 규모로 제작됐다.

봉축위원회 위원장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은 기원문을 통해 "중생제도라는 큰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은 모두가 존귀한 부처의 씨앗임을 가르쳐주셨다"며 "서울의 하늘에 등을 밝히는 것은 지혜로써 마음을 맑게 하고, 자비를 실천해 부처님의 향기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자는 간절한 서원"이라며 어지러운 세상 불법의 등불이 널리 퍼지기를 서원했다.

점등식 후에는 탑돌이가 이어져, 참석한 사부대중들이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 시청앞 광장을 매워 장관을 이루었다. 구례 화엄사 사자삼층석탑을 재현한 봉축 장엄등은 5월28일 부처님 오신날까지 불을 밝히며, 서울시 전역에는 약 5만 여개의 가로등등이 설치돼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다.

서울시청광장=김종열 기자

길 없는 길을 떠난 비구니계의 큰스승 안양 한마음선원 묘공당 대행선사 영결식



한국 비구니계의 한 획을 그은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의 영결식이 5월 26일 오전 10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전국비구니회장으로 봉행됐다.

정목스님의 사회로 봉행된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 조계종총무원장 지승, 포교원장 지원, 중앙종회의장 보선, 전 포교원장 혜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전 비구니회장 광우, 명성 스님, 원불교 박정수 교무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했다.

명정 5타로 시작한 영결식은 삼귀의, 영결법요,

현다 헌향, 행상 소개, 추도 입정, 영결사, 범어, 추도사, 조사, 조가, 헌화, 문도대표 인사말로 진행됐다.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은 영결 범어를 통해 "대행 스님은 법문에서 자성은 생사가 없다고 했다"며 "무량한 공안이 부처와 조사의 망어오, 중생이 망상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와 조사의 생사가 없는 본성 이나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은 추모사에서 "대행 스님은 새로운 포교의 지평을 열었다. 실천적이고

현대적인 다양한 포교 방안을 제시해줬다"며 "스님의 이 같은 행원은 보현보살의 현실이었음을 알게 된다"고 스님의 현대적 포교 방식의 업적을 기렸다.

전국비구회장 명우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6천여 비구니들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전국비구니회관 건립과 전법 현장에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한국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는 우리 비구니의 위상을 드높이신 자랑"이라고 대행스님의 큰 원력을 추모했다.

이외에도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최태호 안양시장 등 각계 인사들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영결식 이후에는 5백 여 장의 만장교 3,000여명의 신도들이 스님의 법구를 따라 다비장이 설치된 서산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불, 법, 승." 정목스님의 거화 계승으로 대행 스님의 법구가 안치된 연화대에 불이 당겨졌다. 지켜보던 신도들은 스님의 극락왕생을 서원하며 눈물을 흘렸다. 다비는 5월 27일 오전 8시까지 계속되었으며, 49제는 오는 7월 9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봉행된다.

안양 한마음선원=김종열 기자

참회의 발걸음으로 나를 돌아보는 대장정 -무심회 스님들 22일간 국토 대장정



최근 도박 파문으로 불교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부산과 경남지역 스님들의 수행결사공동체인 무심회(회장 법장스님) 회원 10명이 승가의 일원으로서 참회하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국토순례대장정에 나섰다.

이번 순례는 본래 현 상황과 관계없이 순수한 마

음으로 이뤄진 것이지만 스님들이 발표한 선언문에 나오는 자성과 쇄신서원으로 언론의 관심을 받다 보니 처음에는 참가스님들이 당황해 했다.

수행결사공동체 '무심회' 소속 스님 10명이 펼치는 참회의 국토순례대장정은 총 22일간 720km를 걷는 수행이다.

5월14일 오전 부산역 광장에서 입제식을 가진 뒤, 출발해 경남 김해와 밀양, 대구, 경북 김천과 문경, 충북 충주, 경기도 광주, 서울 봉은사 등을 거쳐 6월 5일 조계종 총무원이 있는 서울 조계사까지 23일 간 720여km를 걷는 대장정을 펼친다.

대장정은 조계사 대웅전에서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도법스님과 함께하는 무자법회로 마무리 했다.

한편 수행결사공동체 무심회는 2년 전 토굴 수행에서 만난 범 종단 스님 14명의 모임이다. 운암사 주지 법장스님, 여여정사 김해포교원 주지 도명, 해인사 도술암 주지 태연 스님 등이 동참하고 있다.

조계사=김종열 기자

한 그릇의 비빔밥으로 만발공양의 장을 열다. 부산 용두산공원에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 주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회장 백명숙)는 5월 13일 부산 용두산공원에서 열린 연등축제에서 3000여명의 불자와 시민, 외국인들에게 사찰비빔밥을 나눠주는 무자만발공양 봉사활동을 벌였다.

만발공양에는 이사장 정산스님(전 천태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스님 등 10여명 임원스님과 백명숙 여성부회장과 회원들이 동참해 비빔밥과 국을 함께 나눠줬다.

이사장 정산스님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에서 매년 봉행하는 만발공양은 밥 한그릇을 나눔으로 중생의 배고픔을 덜어, 성불의 길로 나아가자하는 자비의 대원행입니다."며 만발공양의 의미를 강조했다. 사무총장 송정스님은 "이 행사는 여성부 회원들의 원력으로 모든 것이 준비 되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백명숙 회장을 비롯한 회원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있기를 서원합니다."며 여성부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를 총괄 지휘한 백명숙 회장은 "한 끼의 공양이지만, 이 공양의 원력으로 많은 중생들이 인연을 맺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기를 바랍니다."며 더 큰 원력으로 매년 행사를 이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용두산 공원에서 열린 연등축제와 함께 부산 봉축위원회의 주요 행사로 자리 매김 했다.

부산 용두산공원=김종열 기자

진리의세계, 불보살의 세계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태장계 만다라>

'대일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대자대 비이신 부처님의 마음을 모태에 비유하고 그 모태안에서 인간의 불성을 성장시켜 나가는 활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태장계 만다라는 중앙의 중대팔엽원을 중심으로 12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천, 신등 모두 414 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금강계 만다라>

'금강정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강계 만다라는 중앙의 성신회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만다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천, 현접천불등 모두 1,461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 ※ 구성표
- ▲ 태장계만다라, 금강계만다라 set 33cm×33cm(액자포함) (30,000원)
- ▲ 가정다라니 46cm×27cm(액자포함) (27,000원)

불기2556년 총지종 봉축법요식 및 사원 축제

불기2556년 봉축 법요식이 총본사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총지사에서는 효강 종령 예하를 모시고, 주교 법등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된 법요식은 훈향정공에 이어 총지사 신정희(회장 김은숙)의 육법공양을 부처님 전 올리는 것으로 시작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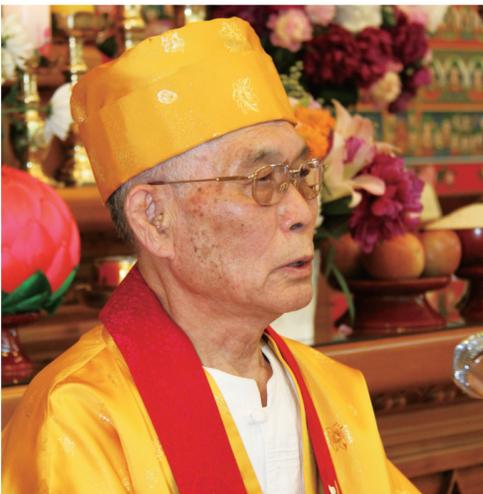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를 통해 “어렵고 각박한 현실을 가진 자의 자비와 사랑으로 보완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화합이고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한 원동력의 바탕은 부처님의 말씀에 입각한 불교 정신이어야 합니다.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법문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진정으로 실천해 나갈 때에 행복으로 가득 찬 불국정토가 실현될 것입니다.”며 자비를 바탕으로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이루기를 서원했다. 이어 지성

통리원장은 봉축사에서 “주인처럼 생활하고, 행동하는 이의 삶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고, 의미없이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과 달리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차별과 분별심을 버리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부처님이 이 땅의 중생들에게 남겨주신 가르침을 되새겼다.

법요식 이후에는 마니합창단의 찬불가 공양과, 이상숙 보살의 양반춤 공연, 서명희 보살 외손자의 피아노 독주가 이어져 부처님오신날의 축제의 장을 열었다. 총지사에서는 총지종보에 비주얼 불교총전을 연재 중인 정수일 화백이 교도들에게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자리를 마련했다. 총지사를 찾은 교도 가족들은 자신의 모습을 한 장씩 그려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통리원 2층 반야실에서는 사경의 장이, 총지사 2층에는 어린이 놀이방이 마련되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관성사에서 연꽃 체험과 원반 던지기 등, 교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부산 정각사에서 육법공양단에 이갑순, 강윤옥, 윤원숙, 황달순, 조현필, 이숙경 노 보살님들이 동참해 장엄을 더했다. 비록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은 불퇴전의 각오로 수행 정진에 임하고 있다는 서원을 부처님 전에 올려 교도들의 박수를 받았다. 또한 중립 동해중학교 학생들의 풍물놀이로 축제의 마당을 활짝 열었다. 영천 단음사에서 법요식 육법공양을 어린이들의 고사리 손으로 올려 화제가 되었고, 전국의 각 사원에서도, 교도들과 사원을 방문하는 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총기 41년 ·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불기
 불기총지종



서울 연등제





2556년 연등축제



부산 연등제



충지종
Middist Chongji Order
충지동해중학교





불교총지종 대만불교연수 동행 취재기



중대선사



중대선사 가람전



중대선사 기념품 교환



전수님 기념촬영

4월 12일

오늘은 이틀간 머물렀던 타이베이 떠나 남부지 방으로 내려간다. 우리나라의 한 여름 날씨다. 덥고 습한 공기가 콧속에 밀려온다. 전세 버스에 올라 약 4시간을 가야한다. 거리상으로 서울과 부산 정도의 거리란다. 고속도로에 들어서니 차창 밖으로 타이완의 풍경들이 눈에 들어온다.

열대 지방에 가까운 날씨라 그런지 키가 큰 나무들이 보인다. 아지수처럼 보이는 나무들이 특히 많다. 그런데 아지수 보다는 나무가 가늘고, 열매가 작아 보인다. 가이드는 '빈랑' 나무란다. 빈랑은 대만 사람들이 즐겨 씹는 껌 같은 기호품이다. 빈랑의 열매를 잎에 석회 가루를 묻혀 말아놓은 형태다.

찜으면 찜과 섞여 붉은 색의 액체가 고이는데 처음에는 너무 맛이 강해 적당히 찜을 빼어주고 그 다음부터 찜과 함께 삼킨다. 각성효과가 있어 장거리 운전하는 트럭 기사들이나, 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중독성과 구강암 발생을 경고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대만의 고속도로는 우리나라만큼이나 잘 만들어져 있다. 대만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1, 3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동서로 짧은 도로들이 연결되어 있다. 요즘의 지붕은 우리의 하이패스 같은 시스템과,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회수권으로 지불

한다. 우리가 이용한 1번 고속도로는 타이완의 북쪽 끝 지룽(基隆)시에서 시작하여, 남부의 항구도시 까오슝(高雄)시까지 연결된 도로이다. 한 시간 반쯤 달려 이름을 알 수 없는 휴게소에 잠시 들렀다. 넓은 주차장에는 평일이라 그런지 차량이 몇 대 없다. 화장실의 규모는 크다. 관리를 잘해서인지 비교적 깨끗한 인상이다.

휴게소 주변 조경에도 많은 신경을 쓴듯하다. 꽃나무가 특히 많다.

두 시간을 더 달려 난도우에 도착했다. 일식도 아니고 중식도 아닌 음식으로 점심공양을 했다.

정문을 들어서자 오른쪽으로 박물관이 있고, 그 옆으로 우리 돈 2조원이 들어간 115미터 높이의 거대한 본전 건물이 서있다. 타이베이 101 빌딩을 설계한 건축가가 설계한 현대식 사원이다. 먼저 오늘 안내를 해주실 스님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후, 산사의 거대한 정문으로 들어갔다. 들어서자마자 포대화상의 좌상이 먼저 우리를 반긴다. 화상의 뒤로 넓은 중앙홀이 자리하고, 그 네기둥을 받들고 있는 사천왕상이 두 눈을 부릅뜨고 방문객들을 내려 본다. 족히 30미터는 되어 보이는 사천왕상은 특이하게도 얼굴이 사면으로 조

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삼성각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공간이 있다.

관우장군상이 모셔져있다. 중국의 전통 종교인 도교에서도 관우장군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불교에서도 관우장군은 외호 신장으로 그 자리매김을 했다.

일반인들은 이곳까지만 참배가 가능하다. 우리 연수단은 별도의 출입증(노란색 스티커) 교부받아 중대선사의 성스러운 공간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5층에는 400여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선방이 자리하고 있었다. 우리 내 선방과는 다른 모

가 없다는 생각이다. 중대선사의 최 중심부를 둘러본 우리 일행은 다시 종무소로 나와 오늘 안내를 해 주신 스님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비구니 스님은 우리 전수님들과 기념 촬영을 한 후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배웅했다. 모두들 수행 공간과 철저히 분리된 사원의 규모에 감탄하며, 다음 목적이인 불광산사로 향했다.

해가 질 무렵 불광산사에 도착했다. 산사의 입구에는 우리를 안내해주실 의일스님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스님은 게스트하우스로 우리를 안내했다.

각자의 숙소에서 짐을 내려놓은 후, 우리는 산사에서 제공해 준 저녁 공양을 맛있게 들었다. 버섯, 두부, 채소 등의 재료로 만든 순수한 사찰음식이다. 깔끔한 맛으로 스승님들 모두가 만족한 모습이다.

저녁 공양 후에는 내일 있을 새벽 예불과 발우공양에 관한 간단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예불의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본격적인 발우공양 시범과 실습이 진행되었다.

이인옥 선생의 시범에 이어 총무부장 인선정사와 실보사 보현 전수의 실습이 이어졌다. 우리의 발우공양은 나무로 만들어진 네 개의 그릇을 사용하는데, 대만의 발우공양은 네모난 접시 하나와 공기 두 개로 공양을 든다.

음식을 받는 법, 먹는 법, 공양을 마치는 법을 차례로 배운 후, 내일 실수나 하지 않을까 내심 걱정하는 눈치들이다. 교육을 마친 후 각자의 숙소로 돌아가 저녁 개인 불공을 마친 후 불광산사의 첫날을 보냈다. <12면 계속>

교육과 문화를 통한 실천 불교의 연장

다들 이른 시간 아침 공양을 한 탓인지 맛있게 들었다. 공양 후 시내를 거쳐 가는 도중 장개석의 동상이 보인다. 세운지 족히 30-40년은 되어 보이는 동상은 세월이 흐른 듯 입을 입었지만, 오른 손을 번쩍 든 모습은 아직도 기개가 서려있다. 약 30분을 달려 푸리의 중대선사에 도착했다. 멀리 보이는 산사의 규모가 매우 커 보인다.

로마의 교황청, 티베트의 포탈라 궁과 더불어 세계 3대 종교 건축물로 불리는 중대선사는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다.

안대를 맡은 스님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자재들로만 사원을 건축했다 한다. 부처님의 범궁을 최고의 정성으로 지으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 2층으로 올라가니 대웅보전의 현판 아래 마하가섭과 아난존자의 협시를 받고 있는 주존불이 모셔져있다.

이 부처님은 인도에서 가져온 화강암으로 조성되었다. 본존의 좌측으로 달마대사의 석상이 깊은 선정에 들어있다. 본존의 우측으로는 가람전

습이지만, 그곳에 서려있는 진리를 향한 열정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16층에는 특수설계로 만든 유리창 아래 7층 목탑이 모셔져 있다. 목탑은 중국의 전탑과 더불어 대표적인 탑의 건축 방식이다. 그러나 뭘지 모를 답답함이 밀려온다. 원래 탑이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법의 진리를 널리 퍼기위한 성보이다. 그만큼 많은 불자들이 경배해야하는 곳이다.

그러나 유리막을 두르고 건물의 중심부에 비장된 목탑은 박물관 유리관 너머의 유물과 다를 바



불다 기념관



불다 기념관 쇼핑몰



불광산사 발우공양 교육



실습하는 인선 총무부장

총지동의보감

자궁건강과 피부질환의 관계



조선화 원장 (여성 美 한의원)

한의학적으로 볼 때 자궁은 제 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여성들의 건강, 피부, 미용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자궁은 생리와 임신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데 그 중 생리는 매달 인체의 어혈과 노폐물을 자궁밖으로 배출하게 되고 배출된 혈액만큼 새로운 혈액을 형성하게 되는 조절기

능이 활성화되므로 혈액순환에 밀접하게 관여하게 됩니다. 즉 평소 건강한 생리를 하게 되는 여성들이라면 자궁이 건강함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며 이 경우 혈액의 생성과 순환기능도 원활해 피부와 모발 등에도 충분한 혈액의 영양이 공급됨으로 건강한 피부와 모발 등을 유지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의 피부는 혈액의 건강상태와 밀접해 피부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질환은 피에 열이 많고 탁해져서 유발되는 것으로 보아 피의 열을 내리고(清熱) 어혈을 풀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회복함으로써 증상을 개선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또한 자궁내에 발생하는 질환 및 생리통, 생리불순의 원인 또한 자궁굴관내의 혈액순환장애로 형성된 어혈이므로 자궁굴관의 순환을 돕고 어혈을 풀어가는 과

정에서 건강한 생리는 물론 피부의 건강도 함께 개선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얼굴에 발생하는 피부질환 중 특히 턱주변에 나타나는 트러블은 대부분 생식기 및 자궁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생리 및 임신, 출산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얼굴의 기미도 간만(肝斑)이라 하여 생식기 및 자궁건강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참고로 앞으로 다가오는 여름철에는 특히 땀의 배설이 많고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탈수와,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과 피부노화 등이 유발되거나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피부는 자궁을 비롯하여 우리인체 오장육부의 거울이라 표현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면과 영양의 섭취, 적당한 스트레칭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건강상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가능하다면 규칙적인 식생활과 수면습관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의 배설이 많아 기온이 빠지고 이로 인해서 어지러움이나 불면증 등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급적 기온을 둔구어줄 수 있는 담백한 영양식을 드시고 과일이나 차등으로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피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2. 자외선은 우리의 피부를 손상시키는 주범이므로 가급적 자외선이 강한 한낮에는 외출을 피하시고 실내에서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도록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피부접촉이 많은 부위와 땀이 잘 차는 곳은 자주 씻어주어 땀으로 인해 배설된 노폐물이 피부에 남아 있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무더운 여름이라도 적당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신선한 대사를 도와준다면 보다 건강한 피부를 유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불자생활법률

불자변호사 하동길 변호사의 생활법률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매일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경매로 산 아파트의 연체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까?

저는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하여 입주하려던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전소유자가 5개월분의 아파트관리비를 체납하였으니 속히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

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체납한 관리비채권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상의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저에게 납부를 요구하면서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제가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대신 납부해야만 하는지요?

▶(주택법) 제44조 제3항은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은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유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供與)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모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 중 공유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유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볼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 8677 판결).

한편,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유부분 관리비의 범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유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유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 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괄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각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 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다만, 공동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유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판결).

따라서 귀하가 위와 같은 체납관리비납부요구에 대하여 별도로 승낙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귀하는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유부분에 관한 관리비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 하동길 법률사무소 (대표전화:02-596-4600)

즐겁게 만드는 건강 요리

“도토리묵 김치보쌈”

도토리묵의 효능

도토리묵은 천연의 탄닌 성분으로 인하여 떫은 맛과 약간 쓴 맛이 난다. 수분 함량이 많아 포만감을 주는 반면 칼로리는 낮고 탄닌 성분이 지방흡수를 억제하여 비만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에는 당뇨와 지사, 권위, 중금속 해독에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요새 시장에서 쉽사리 구할 수 있는 묵을 단순히 무침으로만 먹을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즐겨보자.

** 재료 준비 (3~4 인분)

도토리묵 1/2 모, 김치 1/4 포기, 오이 1 개, 깻잎 10 장, 통깨 약간, 김치 양념; 참기름 1큰술, 설탕 1/2큰술, 맛술 1큰술, 통깨 1큰술, 후추 약간

** 조리 방법

- 1. 도토리묵을 1.5cm 두께로 썰어 놓는다.
2. 김치는 굵은 줄기 쪽을 준비하여 속 양념을 대충 털고(물에 씻지 말 것) 국물을 가볍게 짜낸 후에, 준비한 김치 양념 재료를 모두 섞어서 김치에 발라 준다.
3. 오이는 겉면을 돌려 깎은 후에 채로 썰어 놓고, 깻잎은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뺀다.
4. 김밥을 깔고 김치 양념을 바른 김치를 빈 틈이 없이 펼치고, 깻잎을 서너 장을 펴서 깔아 준 다음, 썰어둔 도토리묵 2 개를 길이 방향으로 연결하여 올린 다음, 채 썬 오이를 고무울리고 김밥을 말듯이 돌돌 말아준다.
5. 먹기 좋게 2~3cm 두께로 잘라 접시 위에 속이 보이도록 가지런히 담은 후 통깨를 솔솔 뿌려 마무리한다.

** 기타 팁

- 1. 겨울철에는 도토리묵 대신 메밀묵을 이용하여도 좋다.
2. 김밥 위에 김치를 펼 때는 김밥의 결 방향과 김치의 길이 방향이 직각이 되도록 한다.

편집 정리 =백지순 위원



여성美 조선화 원장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저(임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경단(子經丹)
중양질환
자궁근종
생리질환
불임 자궁어혈케어



여성美 한의원
자경단(子經丹)
자궁강진단기
초음파
온열기침
저주파저리기
자훈욕기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전화상담 02)545-0072
팩스 02)545-2191

한남대학교
신시역3번출구
신시역1번출구
도산대로
30M 20M 1분거리
STARBUCKS
대성미한의원
김남역



풍경소리

다시없을 인연

"20억 번"

당신의 심장이 평생 뛰는 횟수입니다.
 한 회, 한 회 뛰는 심장은
 당신이 살아 숨 쉰다는 증거이며
 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매 심장 박동마다 한 명씩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인구의 1/3도 만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뛰고 있는 심장에게는
 단 한 번의 박동도 다시는 오지 않을 순간이며
 지금 당신과 심장 박동을 나누는 이는 다시없을
 인연입니다.

최윤주 / 미국 다트머스대학교
계산생물학 연구원



옷 갈이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갈이한테
 헌 옷갈이가 한마디 하였습니다.
 "너는 옷갈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왜 옷갈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갈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故 정채봉 / 시인, 아동문학가



이달의 사진 "아기 부처님이 오신 까닭은?"



사진 = 조계사 김종열 기자

VISUAL 불교총전 제36화

꽃향기는 바람을 못 거스려도
 계향은 어디에나 흩어 퍼지며
 내세까지 복덕이 끊임이 없다

글·그림: 정수일
<http://www.drawing라훌라.kr>

부처님의 계행 어리석은 이의 계행

아! 맛있는 과일이구나.

앗! 먹음직 스런 과일이구나.

아침 배고픈데 잘 됐다. 과일로 요기를 배를 채우자.

잘 됐다. 배 고픈데 실컷 따먹자.

아휴~!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구나.

흠~ 이 향기로운 이 냄새는!

이거 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구나.

어떤 놈이 참기름을 발라 놔어!

이런, 바람의 방향이 바뀌니 향기가 사라졌어.

내 방법이 틀렸어! 똑바로 올라가자.

아유! 맛있어.

역시 올바른 방법으로 나무에 오르면 쉽게 과일을 따 먹을 수 있군.

쿵!

이런 나무는 당장 잘라 버려야 해!

페펄! 아웃~땀어.

맛있는 열매를 따 먹으려면 반드시 계울을 지키고 온갖 공덕을 쌓아야 한다.

내용참조: 불교총전 p352 정계편 1절 2, 3



암반수로 빚은 전통된장 “강화도”

강화도 청정지역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우리 된장



- 제품 종류
- 된장 1Kg : 20,000원
 - 간장 1.8L : 10,000원

영화에서 불교보기 (22)

임권택 감독과 강수연의 완벽한 조합 <아제아제 바라아제> 대승적 인물의 전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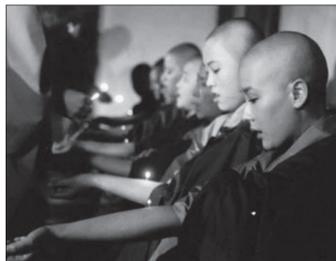


감독이 지향하는 수행자상이 표현된 것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에서 보여준 대승적 인물은 꽤 감동적이었습니다.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에 제대로 부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신의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그녀의 저항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절에서 살면서 부처 되는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길을 착실하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순간 그녀는 몹시 두려웠던 것입니다.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반면에 화두에 매달려 살았던 진성스님은 여전히 방황의 한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만다라>에서도 선방 수좌들은 방황을 했습니다. '부처가 된 후 더 큰 허무를 어떻게 견딜까'를 읊조리던 스님은 <아제아제 바라아제>에 와서는 '왜 부처는 태어나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가'라고 합니다.

오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청하스님의 완성이었습니다. 청하스님은 임권택 감독의 두 편의 불교영화에서 가장 명료하고 밝은 인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인물들이 허망한 것에 매달려 삶을 소비하는 인상을 주는 데 반해 청하스님은 훨씬 생산적인 삶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런 묘사가 나오는 것은, 감독은 불교의 나날



수행자들은 대부분 '아상(我相)'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구보리(上求菩提)' 즉 지혜의 개발에 집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일반인의 눈에는 탐탁찮게 보이는 구석이 있습니다. 산중에서 혼자서 깨닫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의구심을 일으키는 것이죠. 즉 참여적인 불교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가 반영된 영화가 임권택 감독의 두 번째 불교영화 <아제아제 바라아제>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1989)는 임권택 감독이 <만다라>에 이어 만든 불교적 영화입니다. 임감독은 <만다라>에서는 선방 수좌를 주인공으로 해서 '상구보리'의 수행세계를 다뤘습니다. 반면에 이번 영화 <아제아제 바라아제>에서는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수행세계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습니다.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공평하게 둘 다 다뤘지만 감독의 시선은 사실 대승불교에 더 가깝습니다. 앞의 영화보다 이번 영화에서 그는 훨씬 명백한 결과를 보여주는 편입니다. <만다라>에 나오는 수좌는 기껏 도달한 경지가 모성에 대한 애증을 극복한 정도인데 반해 <아제아제 바라아제>의 청하스님은 '아상'을 극복한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청하스님이라는 캐릭터에는

삶을 진흥할 속으로 마구 내팽개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개인적 욕망을 포기한 모습인데 완성도 높게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불교영화를 봐왔지만 가장 형상화가 잘 된 캐릭터였습니다.

대승적 인물 청하스님이 애초부터 대승의 길을 걷은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영화에 나오는 다른 스님들처럼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이고 싶었습니다. 개인의 깨달음에 치중하던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싶어 하는 남자를 살려준 게 계기가 돼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박현우 라는 남자 때문에 결국 출문 당하고 남자와 함께 광산촌으로 가서 살림을 차리고 삽니다. 남자가 스님에게 요구한 것은 죽고 싶어 하는 자신을 살려냈으니 자신의 나머지 삶을 책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그의 삶에 끼어들게 됐지만 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삶에서 자신 또한 기쁨을 찾았습니다. 자신을 버림으로써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에서 스님은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청하스님도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박현우라는 남자의 출현으로 자신의 삶이 실타래처럼 꼬여드는 것에 강한 저항감을 느꼈습니다. 절에서 출문당한 후 남자와 함께 버스를 타고 정처 없이 떠나다가 갑자기 버스에서 뛰어내려

그런데 그녀는 박현우와 더불어 살림을 차리고 살면서 또 다른 자아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자신을 향해있던 자아에서 타인을 바라보는 자아로. 자신의 욕구를 점점 잃어간 자리에 타인의 행복이나 욕구가 자리 하게 된 것입니다. 대승불교의 지향점입니다.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첫 번째 남편인 박현우가 막장에서 목숨을 잃은 후 그녀는 이번에는 다리를 잃은 남자의 아내로 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자아가 더욱 아상을 떠났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인생이나 출가자로서의 품위 이런 걸 모두 극복했음을 알게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욕망을 버린 후 그녀의 외형적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다리 없는 남편도 죽고, 비금도라는 어촌마을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는 아들 하나를 키우며 외롭게 사는 운전기사에게 연민을 느껴 그와 살림을 차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기준이 자신의 욕구가 아니고, 자신의 쓰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기꺼이 몸을 던지는 삶이었습니다. 중생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관세음보살의 삶과 다르지 않았습다.

이렇게 청하스님은 자신을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아상을 극복해갔고, 마침내 보살의

결국 부처가 되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고, 부처 되는 길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결국 시지프스처럼 허무의 극한을 맛보게 된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 화두에 매달리는 행위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뜻인 게지요.

진성스님은 청하스님과 대비점에 있는 스님입니다. 은사스님이 준 화두 '달마스님의 얼굴에는 왜 수염이 없을까'와 같은 화두에 매달려 공공 앞으면서 계에 매달려 사는 스님입니다. 그야말로 수행을 위한 수행을 하는 스님입니다.

청하스님과 벵머리에서 마주했을 때 진성스님은 선방에서 오래 수행을 하다가 풀리지 않은 화두에 절망한 후 만행을 떠났다가 다시 토굴로 돌아가린 참이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은 그 어떤 결과도 보이지 않았습다.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다.

반면에 이 남자 저 남자와 살림을 차리고 살다가 지금은 비금도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청하스님은 한결 여유가 있어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라는 아상에 더 푹푹 묻힌 인상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점점 비워낸 모습이었습니다. 영화가 확실히 '하화중생'의 길을 지향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만으로 두 사람의 게임은 이미

바를 대중과 함께하는 참여적인 불교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게 일반 대중이 불교에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잘 만든 영화입니다. 대승불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겨있고, 강수연이라는 월드스타의 연기도 뛰어났고, 그림도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움은 있습니다. 수행을 위한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과연 청하스님의 아버지처럼 기쁨이나 푹푹거리면서 자기 회한에 빠진 인물이거나 진성스님처럼 아상으로 푹푹 묻힌 스님일까, 하는 회의감.

신라시대 노힐부득스님이 불쌍한 연인을 도와주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여인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세월 수행을 해왔기에 이미 아상이 거의 극복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깨달음을 포기하면서까지 여인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나를 향한 집요한 집착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지에 도달하는 방법은 앞의 청하스님처럼 '하화중생'의 길도 가능하지 않나, '상구보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진정한 불교영화라면 '상구보리'를 통한 자아상을 극복한 케이스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영화를 기다리며.

김은주 <자유기고가>

전남영광 특별한 굴비의 맛 청수굴비



영광굴비의 유래

굴비(屈非)? 물고기 이름치고는 참 독특한 이름이죠. 이러한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데요. 고려 16대 예종 때 이자겸은 그의 딸 순덕을 비(妃)로 들이어서 그 소생인 인종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지요. 또한, 인종에게도 셋째딸과 넷째딸을 시집보내, 중복되는 인척관계를 맺고 이를 업고 권세를 독차지 하며 은근히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 뒤 최사전 이자겸 일당인 척준경을 매수하여 체포한 후, 영광 법성포로 유배시켰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 지역 특산품인 굴비를 먹게 되었고, 마침내 왕에게 칠산바다에서 잡은 조기를 소금에 절여서 진상하면서, 결국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한 아부자 아니고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굴비라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계좌번호 (예금주: 김장호)
농협 : 643045-52-114021
광주은행 : 721-121-012900

제품종류

- 청수 1호 1.3kg / 20마리 / 12,000원
- 청수 2호 1.6kg / 20마리 / 25,000원
- 청수 3호 1.8kg / 20마리 / 35,000원
- 청수 4호 2.0kg / 20마리 / 60,000원
- 청수 5호 2.2kg / 20마리 / 80,000원
- 청수 6호 2.4kg / 20마리 / 100,000원
- 청수11호 1.2kg / 10마리(大) / 60,000원
- 청수12호 1.3kg / 10마리(大) / 80,000원
- 청수13호 1.4kg / 10마리(大) / 100,000원
- 청수14호 1.5kg / 10마리(大) / 150,000원
- 청수15호 1.7kg / 10마리(大) / 200,000원

-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 *두드름 이상 주문 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청수4호부터 청수15호까지는 저희가 택배 부담합니다.

제품설명

참조기만을 엄선하여 1년 이상 간수가 빠진 철일염을 사용하여 염장하여 엮어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 법성포 해풍에 말린 후 가장 맛있는 상태에서 냉동시킨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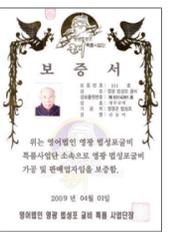
습도가 5% 이하로 낮아지는 낮에는 해풍으로 건조되고 습도가 95% 이상 올라가는 밤에는 참조기 속속들이 들어있는 수분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 육질이 속성되는 영광 굴비는 칠산바다에 접한 법성포의 기후적 여건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제품이 물기가 흐르는 것은 급속 냉동시킨 제품이 배송시 조금 녹아서 묻어 있는 것입니다. 제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관방법

서늘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 걸어두면 변질되지 않지만 오래두면 배에서 기름기가 배어나와 맛이 변하므로 가끔씩 녹지 않은 상태에서 끈을 제거하고 랩으로 2~4마리씩 사서 냉동 보관하다가 1봉씩 꺼내드시면 변질되지 않으며 본래의 맛이 오래도록 유지 됩니다.

요리방법

생선 굽는 그릴에 중간불에 서서히 구워야 제 맛이 납니다. 갖은 양념을 바른 후 찌거나, 매운탕을 하셔도 맛있습니다.



보증서

이는 영어법인 영광법성포굴비 특품사업단 소속으로 영광법성포굴비 가장 및 판매업자를 보증함.

2009년 10월 10일

영광법성포 굴비 특품사업단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리 564-4
사업자 등록 번호 : 410-97-06370 · 대표자 : 김동식
상담 및 문의 TEL : 061-356-2466 FAX : 061-356-2468 H P : 010-5325-8824

※ 제조원 청수굴비는 영어법인 영광굴비 특품사업단 회원업체입니다. 신선한 제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포장상태는 조금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청수굴비는 법수원 기로스승의 자제 이은주 보살이 운영합니다